



하나라포럼 선정회는 12일 '불국정토 어떻게 이룰 것인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상사 남 허물볼 시간 없어요”

하나라포럼서 해암스님 시국관련 법어

“세간사(世間事)에 큰일은 없어, 생사를 해탈해 도를 깨치는 것만이 진정한 일대사(一大事)야.”

해암 조계종원로의 의장스님의 법어가 현 시국과 관련, 관심을 모았다. 해암스님은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 하나라포럼에서 증명법어를 통해 집현철체 사건이나 한보사태 등 세간에 벌어지고 있는 대란(大亂)에만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깨쳐 생사를 해탈하는 일대사에 매진해 달라”고 설했다.

해암스님은 또 “모든 죄는 자신이 지어 자신이 받을 뿐이니 남 허물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 데 무슨 남이 더 낫고 중요한 일입니까”고 반문하며, 불자들이 세간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관심법(觀心法)이 총섭제(總攝濟)임을 알아 도 닦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석원 전 서경관장, 서영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대표(기독교), 이재룡 대종교 전리살장, 최동희 천도교 상주전도사, 이형래 한국이슬람교 이맘 등 각 종교계 대표들이 토론에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해암사 주지 법타스님은 ‘불국정토 어떻게 이룰 것인가’ 주제의 발제를 통해 불국정토를 이루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 중생과 고락을 함께 하는 것)의 ‘십법(十攝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라는 신화공주(身和共住),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구화무쟁(口和無爭),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화동존(意和同尊), 법과 도덕을 잘 지키는 계화동수(戒和同守) 등 6화경(六和敬) △8정도 △바라달 등 그것.

“백! 백익!”

“1번팀 답해주세 요.”

“준다입니다.”

부저소리와 병사들의 함성이 뒤섞인 1군 사령부 법담 법응사(주지 조길조법사) 대웅전은 교리퀴즈 열기로 가득차 있다.



법응사 법당에서 장병들이 교리퀴즈에 열심이다.

찬불가 경연·교리퀴즈 신심 높여

군법당 법응사 초파일법축 사병전치

11일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으로 열린 ‘교리퀴즈 및 찬불가 경연대회’는 1군지역 3백여명의 사병들이 참여하는 불자사병 한마당 잔치로 꾸며졌다. 2인1조로 총 30팀이 참가, 예선을 거쳐 결선에 오른 팀은 4개팀.

다섯문제를 먼저 맞춘 팀에게 우승이 주어진다. 출연자들이 문제를 놓치면 방정석 사병들에게 기사가 주어지기 때문에 퀴즈문제에 모두들 열심히 귀기울였다. 사병들에게 불교교리를 재미있게 가르칠 목적으로 미리 예상문제를 배포하고, 4박5일 휴가 및 탁상시계 등 푸짐한 상품을 내놓아 사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날 퀴즈대회의 우승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군사령부 부부

소속 백승엽상병과 이상민일병팀이 차지했다.

다른 퀴즈대회와는 달리 중간에 ‘찬불가 경연대회’를 열어 법음의 향기를 퍼뜨려 흥을 돋우었고, 같은 부대원들이 답을 맞추면 격려의 박수를 쳐주는 등 한 마음이 되어 불교교리를 차근차근 익혀나갔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교리퀴즈대회를 마련한 조길조법사는 “군법당 본래의 목적은 사병들의 정신교육 및 포교인데 비해 기존 퀴즈대회는 오락성 위주였는데, 올해는 찬불가 경연과 함께 사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원주=김주일 기자

법방 체육진흥공단 무량회

“자비나누면서 참나 배워요”

고아원·양로원·결핵원 결연 위문활동 ‘꾸준’

올림픽공원 일대에 부처님의 법음과 법등을 전하고 있는 무량회(회장 이태현)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정진하고 있는 불자들의 모임이다.

12일 무량회는 올림픽공원 1층 법당에서 조계종 포교원 연수국장 법경스님을 법사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관불식을 통해 아가 부처님의 법신을 물로 씻으면서 회원 각자의 마음에 묻어있는 번뇌의 속매를 함께 씻어내렸다. 이날 법회에서는 자매결연을 맺은 광림사(주지 해성스님) 연화복지학원 소속 장애인법우들도 함께 참여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91년 10월 18일 올림픽회관에서 13명의 불자들이 발기대회(초대회장 박삼욱)를 가진 무량회는 두달 뒤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으로부터 ‘무량회’ 휘호를 받고 하 기어기약사의 ‘현대인과 무량성’ 주제의 강연을 시작으로 6년만에 150명의 회원을 확보해 직장법회로 성장했다.

그동안 탄허·관음스님 등 우리나라의 내로다하는 스님·학자들



국민체육진흥공단무량회 회원 1백여명은 지난 12일 올림픽공원 내 법당에서 관불식을 봉행하고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을 초빙, 2백회가 넘는 법회를 열었다. 또 직장내의 어려운 환경이 회원과 경비원들에게 분기별로 쌀과 성금을 전달하고 양로원, 고아원, 결핵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봉사·위문활동을 펼치는 등 자비행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재민돕기성금을 전달하고 군부대법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무량회가 이처럼 수행과 보시행을 고루 실천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교리·경전공부와 108화회 정

진, 참선 등으로 다져진 불심 때문이다.

이태현회장은 “창립 때 세운 바야흐로 안상과 4무량심(四無量心; 보살이 가지는 慈·悲·喜·捨의 무한한 자비심)의 실천, 이익중생(利益衆生)을 이념으로 하는 3대 서원을 이루기 위해 공부한 만큼 실천하는 모임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실무지식 얻고... 팀웍 다지고...

조계종 재가종무원 공부모임

조계종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에 근무하는 재가종무원들이 각종 공부모임을 통해 불교와 해당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팀웍을 다져나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부처님오신날을 하루 앞둔 저녁시간 교육원 2층 회의실, 포교원에 근무하는 총무원들은 교육원 2층 회의실에 모였다. 김관태 포교과장, 김경호 연구과장을 비롯 10명. 3월초부터 시작한 ‘한국불교사’ 마지막 시간이다. 고완수 연수과장이 중국과 한국선종의 개괄적인 흐름을 요약해 발표했다.

공부모임을 제안한 김관태 포교과장은 “총무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이후에는 포교원의 업무



조계종 재가종무원들은 매주 모여 교리·실무공부를 한다.

와 관련된 공부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은 지난 3월부터 매주 업무와 관련된 조세 법 지적법 등기실무 등 주로 업무와 밀접한 내용들로 ‘직업실무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인이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기도 한다.

교육원은 한국 근현대불교사 학습에 이어 3월부터 승가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있다.

우리 모임에선

붓다클럽 ‘붓다대상’ 시상

붓다재주중앙클럽(총회장 문인중)은 10일 제주 괏호호텔에서 열린 ‘나라와 도민의 안녕을 위한 기원법회’에서 제5회 붓다대상 시상식과 소년소녀 가장 격려금 전달식을 가졌다. 소년소녀 가장 및 단체, 개인의 추천·심사를 거쳐 결정된 붓다대상 수상자에게는 전통예술부문에 조을선 씨(82), 효행부문에 송준희씨(49), 사회봉사부문에 김부자씨(51)가 선정돼 상패와 상금 50만원씩을 각각 수여받았다.

붓다클럽은 이어 3년전 회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소년소녀 가장 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5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직장불자회도 봉축법회

○...국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이범이 사무처장)는 9일 국회직장신원에서 영주 부처사 주지 근일스님을 법사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근일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생활속에서 불심을 키우고 수행하는 직장법회의 모범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교도소불심회(회장 이무양)는 20일 오후 대구교도소에서 영남대학교 학장 우학스님을 법사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불심회원 60명과 재소자 3백여명이 참석.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불교신도회(회장 강인성)는 10일 수성구 반야사에서 법현스님(도성사 주지)을 법사로 봉축법회를 봉행. 이날 법회에는 수행위원장인 법상스님(반야사 주지)과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교도소 80여명 수계

대전교도소불자회(회장 정진우)는 9일 오후 교도소내 종교관에서 대전사범연합회장 월해스님(금강정사 주지)을 수계법사로 봉축기념 재소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재소자 80여명이 수계를 받고 불자로서 새 삶을 살게 됐다.



담마룩카 부총정 월주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0일 스리랑카 담마룩카 부총정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이날 월주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마룩카 부총정은 “6년째 여래종과 교류를 맺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간의 원활한 불교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래종 총정 인왕·총무원장 해안스님을 비롯 스리랑카 게네나대학 다야교수 등이 배석했다.



한국불교연구, 티벳하우스와 결연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이 14일 인도 ‘티벳하우스’(원장 라마 도보 불루)와 자매결연을 맺고 세계 불교학계와 교류를 시작했다.

한국불교연구는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98년에는 ‘티벳의 성스러운 지혜와 열정’을 주제로 티벳 풍물전, 민속공연 등의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99년에는 양국 불교의 경전·언어·사상 등의 분야에 대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재소자 2천여명에 대중공양

성동구불교연합회(회장 정우·구동사 주지)는 9일 화답스님(은선사) 청하스님(보현정사) 목화원장(불심정사)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동구수서에서 재소자 2천여명에게 대중공양을 실시하고 봉축법회와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정우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것은 복된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며 “초파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동작구 불교연합회 봉축법회

동작구불교연합회(회장 해철·청령사 주지)는 9일 서울 동작구민회관에서 봉축 대법회를 개최했다. 해철스님은 봉축사에서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대비인력을 세워 수많은 이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에 적극 동참하자”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도림사주지 성도, 미타사주지 만화, 백운사주지 제현, 우암사주지 종연, 보광사주지 동효스님, 김기옥 동작구청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KAL 월드투어 97.6.18~97.6.30

일차	행차	교역권	시간	주요법회 및 내용	식사
1	서울	전역	12:00	신앙기행으로 김포국제공항 출발	자
2	서울	전역	12:30	신앙기행으로 김포국제공항 출발	기
3	서울	전역	12:30	신앙기행으로 김포국제공항 출발	중
4	서울	전역	12:30	신앙기행으로 김포국제공항 출발	중
5	서울	전역	12:30	신앙기행으로 김포국제공항 출발	중
6	서울	전역	12:30	신앙기행으로 김포국제공항 출발	중
7	서울	전역	12:30	신앙기행으로 김포국제공항 출발	중
8	서울	전역	12:30	신앙기행으로 김포국제공항 출발	중
9	서울	전역	12:30	신앙기행으로 김포국제공항 출발	중
10	서울	전역	12:30	신앙기행으로 김포국제공항 출발	중
11	서울	전역	12:30	신앙기행으로 김포국제공항 출발	중
12	서울	전역	12:30	신앙기행으로 김포국제공항 출발	중

불기 2541년

후원: 대한한글 / BBS 불교방송 / 구학산 불교협회 육신보전

장강·삼점 (1차)	₩1,280,000	장강·삼점 (2차)	₩1,280,000
1차: 97.6.18~6.24 (6박7일)		2차: 97.6.24~6.30 (6박7일)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 운항

1차: 97.6.18~6.24 (6박7일)
2차: 97.6.24~6.30 (6박7일)

(관객당금증인)

한진관광

02-726-5702~3

예약: 02-726-5702~3

대리: 02-726-5702~3

박동률: 02-726-5702~3

박정숙: 02-726-5702~3

VISA 비용별도 ₩16,000 · 구비서류: 여권, 사진 1장
신용카드 ₩100,000 결제은행: 105-110-095402 / 예금주: (주)한진관광

지점 및 영업소: 부산: 463-2115 · 제주: 42-7217 · 팔레스타인: 536-0368-9
기타: 745-3070-3 · 광주: 228-0041-2 · 서울: 718-3140-1
대구: 426-6706-8 · 대전: 252-2034-5 · 서울: 575-8324-5